

2013. 04. 02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3년 4월 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

서울시	주택정책과장	서성만	2133-7010
	주거복지팀장	이원군	2133-7025
	주 무 관	김원철	2133-7027
SH공사	매입임대팀장	심범준	3410-8540
	담 당	전양수	3410-854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서울시, 임대주택용 다가구주택 1,500호 매입한다

- 시,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다가구·다세대주택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
- 고도·경관지구내 지역 주택 우선 매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공동생활 공간 있는 '세어하우스형 주택' 도입, 150호는 대학생 기숙사로 제공
- 1일(월)~19일(금) 25개 자치구 SH공사에서 동시 신청 접수, 매도자 편의 제공
- 매입신청서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, 토지대장 등 구비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-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, 입지여건 등 종합 고려해 매입여부 결정
- 시, “소셜믹스 효과적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, 주변생활여건 양호”

- 서울시가 올해 다가구·다세대주택 1,50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~3인 이상 가구와 대학생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.
- 이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도입 및 임대주택 8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, 시는 지난해에도 기존주택 1,5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.

-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방식은 입주자가 기존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걱정 없이 입주자격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,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입주자(수요자), 공공기관(공급자)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,
- 지역별 현황을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생활여건이 양호한 주택 위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.

□ 서울시(SH공사)는 4월1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서 동시에 매도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.

〈고도·경관지구 내 지역 주택 우선 매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〉

- 시는 특히 올해부터 일반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한산, 남산 등 최고고도 또는 경관지구 내 다가구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.
- 고도·경관지구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주택이 노후해도 개선이 쉽지 않고, 이러한 이유로 주택 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.
- 이와 더불어 부채상환부담이 과도한 주택소유자 즉, 하우스푸어(House Poor) 소유 주택 또는 실버계층이 소유한 주택이 매입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.

〈공동생활 공간 있는 '셰어하우스형 주택 도입 150호는 대학생 기숙사로 제공〉

- 서울시는 공동취사 등 주민 스스로 주제를 정해 이웃세대와 정겹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주택도 시범적으로 매입해 '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'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- 셰어하우스(Share House)란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써, 침실·욕실 등의 전용공간 외에 취사·휴식공간 등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유형으로 입주자간 취미나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.
- 이는 단순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양하고, 마을공동체, 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해 소셜믹스(Social Mix)와 더불어 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.
- 또, 전체 매입량의 10%에 해당하는 150호는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매입해 대학생들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.
- 매도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(www.i-sh.co.kr)에 있는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,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을 구비해 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.

[신청접수 장소]

- ▶각 자치구 건축(디자인건축)과
- ▶SH공사 매입임대팀 (주소: 강남구 개포로 621, 지하철3호선 대청역)
※세부 상담문의(SH공사) ☎02)3410-8547, 8548, 8559

- 매입신청을 접수한 주택에 대한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, 입지여건, 주택품질,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.

-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매입형 임대주택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선 획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”라며, “특히, 올해는 고도·경관지구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다가구·다세대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